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6)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6 2) 96사단 주둔지-(21)명도암과 293연대  
오름 사면따라 일본군 갱도 줄줄이

입력 : 2007. 12.06. 00:00:00



▲뱃세미오름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 입구. 일본군 갱도 내부를 조사하는 취재팀. 나란히 늘어선 뱃세미오름(왼쪽)과 안세미오름(사진 위에서부터).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70여m 갯도 및 입구 함몰 15곳 이상 확인 절물오름서 대나무로 물 끌어다 식수 사용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에 들어서면 일본군은 쫓기듯이 속속 제주로 진주한다. 그 해 초 수천 명에 불과하던 일본군은 4월이 되면서 주력부대가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 8월까지 7만5천여 병력이 주둔하는 것이다. 당시 제주읍 일대도 일본군 96사단 예하의 주력부대가 동·서부로 나뉘어 주둔, 일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의 일전에 대비한다.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 등에는 동부지역은 현재의 제주시 봉개동 일대가, 서부지역은 오등동 민오름 일대가 주저항진지로 표시돼 있다.

제주시 봉개동 일대에는 어떤 부대가 주둔했을까. 바로 일본군 96사단 예하의 293연대본부와 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현재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은 60여 년 전 일본군 주력부대의 주요진지로 요새화됐다. 명도암 마을 뿐 아니라 주변 오름은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대규모 갯도진지 등 군사시설을 구축한다.

취재팀은 명도암 안세미오름에 이어 밧세미오름에서도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파놓은 갯도진지를 찾아냈다.

북동쪽으로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는 밧세미오름(제주시 봉개동 산3번지 일대, 표고 391.7m)은 소릿길과 나란히 늘어선 안세미오름과 함께 형제오름, 형제봉 또는 명도오름 명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밧세미오름 탐사 결과 길이 70여m의 갯도와 입구가 함몰된 갯도 15곳 정도가 동쪽에서 남쪽 사면에 이르는 부분에서 집중 확인됐다. 이러한 밧세미오름의 갯도 구축 양상은 15곳 이상 갯도가 구축된 안세미오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함몰된 갯도입구 주변에는 토사층이 쌓여있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동쪽 능선에서 찾아낸 70여m 길이의 갯도 입구는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함몰 등으로 인해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디귤자형 구조로 만들어진 이 갯도의 또 다른 입구는 막혀있는 상태다.

갯도 내부 가운데 25m 길이의 주통로는 폭과 높이가 각각 270cm, 240cm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큰 규모다.

구축상태로 볼 때 아마도 밧세미오름 일본군의 중심 갯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은 송이층으로 된 갯도 진입부 벽면에는 갯목흙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는 등 양호한 상태를 보여준다. 입구 부분이 무너진 것과 달리 갯도 내부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밧세미오름의 입구가 막힌 나머지 갯도들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갯도가 구축된 명도암마을에는 연대본부가 들어서고 보병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일본군들과 마주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일본군들이 주둔하면서 절물오름에서 마을까지 대나무관을 이용 물을 끌어다 식수로 쓰고, 많은 공출에 시달렸다"며 당시를 증언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은 제주시 동·서부 지역에 293, 294연대를 포진시키고 산간지대인 산천단 일대에는 292연대병력과 96사단본부가 주둔하는 형태를 취했다.

지금까지 탐사결과 확인된 갯도진지 등 군사시설들은 이러한 일본군의 주둔실태와 전쟁야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제주섬의 비극과 아픔은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현장 인터뷰/제주시 봉개동 김순식씨]"오름 꼭대기까지 갯도 관통"



제주시 봉개동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순식씨(봉개동 398번지·1937년 생)는 명도암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김씨는 1945년 당시 봉개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현재 봉개동 명도암 정류장 뒤 경작지에 일본군 연대본부가 자리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중대본부도 있었다.

"연대본부는 돌담을 둘러서 초집(함바 형태)으로 만들었는데 일본군들은 2년 정도 주둔한 걸로 기억됩니다. 연대장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계급은 대좌로 차량 등이 있었죠. 당시 일본군 99식 소총과 대포를 싣는 구루마 등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지만 다른 무기들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또 말을 타고, 긴 칼을 찬 일본군들은 많이 봤다며 기마부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명도암에 연대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명도암오름(안세미·뱃세미오름)과 칠오름 열안지오름 노리오름 등에 굴(갯도)를 팠다고 증언했다.

"명도암오름 앞 현재 경작지에 일본군들이 주둔하면서 갯도를 팠죠. 갯도는 꼭대기까지 관통돼 있어서 위로도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갯도는 완성된 형태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물러간 뒤 마을사람들끼리 집을 짓기 위해 갯목들을 가져가려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일본군들이 직접 대나무로 수도파이프를 만들어 절물오름의 물을 명도암까지 끌어와 식수로 이용했다"며, 주민들은 먹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일본군 졸병이 배가 무척 고파서 동네 할머니가 감저떡(감자떡)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기도 하는 등 상황이 열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일본군 갱도가 4·3 때는 피신처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큰노리손이(노리오름)에는 나를 포함해서 4·3당시 명도암 주민 20여명 정도가 1주일 이상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때 오름 꼭대기에 보초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경찰이 나타나면 돌을 허물고 도망치곤 했죠." 하면서 당시 일제강점기와 4·3 시기에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